

영국의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주의 — 켄 로치의 〈가족 생활〉 —

이혜린*

목 차

-
- | | |
|---------------------|--------------------------|
| 1. 켄 로치의 영화 〈가족 생활〉 | 3.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반가족주의 |
| 2. 정신의학 제도에 대한 고발 | 4. 1960년대의 시대정신과 〈가족 생활〉 |
-

■ 국문초록

켄 로치 감독의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두 가지 주요 담론인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다룬다. 영화는 조현병(당시 ‘분열증’) 진단을 받은 젊은 여성 제니스가 가족과 정신의학 제도의 억압적 구조에 포획되는 과정을 사실주의적 재현방식을 통해 고발하는데, 이는 R. D. 랭과 데이비드 쿠퍼 같은 반정신의학자들의 핵심 주장, 즉 “광기는 핵가족 환경에서 배태되며, 정신의학은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영화는 또한 제니스의 부모가 상징하는 기성세대의 획일적이고 순응적인 가치체계와 1960년대 영국의 청년 세대의 대항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탐구를 넘어 가족이라는 미시적 제도로부터 정신병원과 공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회시스템의 공모관계를 비판적으로 재현한다. 영화는 제니스가 기존의 주류 정신의학 시스템에 의해 무력하게 ‘정상화’되고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순응적 노동력 혹은 정신의학의 임상 자료로 사용되는 냉정한 결말을 제시하면서 1960년대 반정신학과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주의 및 탈제도화를 향한 시도가 마주했던 주류 시스템의 견고함을 보여준다. 영화 〈가족 생활〉은 켄 로치 감독 특유의 사회적 리얼

* 전남대학교 강사

리즘 연출 방식에 입각하여 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1960년대 영국 사회의 문화적 대변동과 그 시대 정신을 통해 해명해내는 중요한 문화텍스트로서 그 가치가 크다.

주제어 : 켄 로치, <가족 생활>, 조현병, 반정신의학, 대항문화운동, 반가족주의

1. 켄 로치의 영화 <가족 생활>

<가족 생활>(Family Life, 1971)은 켄 로치(Ken Loach) 감독¹⁾의 두 번째 장편 영화로, 그가 앞서 연출한 BBC방송의 텔레비전용 드라마 <분열된 마음>(In Two Minds, 1967)을 스크린용 영화로 다시 제작한 작품이다. 이미 TV에서 방영된 <분열된 마음>이 영화로 다시 제작된 배경에는 이 드라마가 당시 영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커다란 사회적 반향과 논란이 있다. <분열된 마음>은 당시 정신의학이 ‘조현병’(schizophrenia, 정신분열증)²⁾으로 진단한

-
- 1) 켄 로치(1936~)는 1960년대 BBC 방송의 드라마 연출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스무편 이상의 장편 영화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으며,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 차례에 걸쳐 수상하여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오른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다. 그의 작품들은 1960년대 후반 영국 사회의 하층계급을 다룬 <불쌍한 암소>(Poor Cow, 1967), <케스>(Kes, 1969) 등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랜드 앤 프리덤>(Land and Freedom, 1995), <빵과 장미>(Bread and Roses, 2000),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The Wind that Shakes Barley, 2006) 등 국제적 차원의 노동 및 정치문제로 영역을 확장해갔으며,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와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 2019) 등 최근작에서는 영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선다. 그의 영화는 영국적 토양에서 성장한 ‘사회적 리얼리즘’(social realism) 전통에 충실하여 다큐멘터리 연출방식을 극영화에 적극 활용하고 개개인들이 직면하는 사회 현실적 문제들을 사실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2) 우리나라에서 ‘schizophrenia’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은 2010년까지 ‘정신분열병’이었으나,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이 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치료와 회복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1년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조현병’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정신분열’이라는 ‘schizophrenia’의 원래 의미가 담겨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므로 이 글에서도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여성 인물의 상황을 다루었는데 드라마에 다큐멘터리적 형식을 결합하는 파격적 연출 방식을 통해 정신 상담 및 전기충격요법과 같은 치료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치료방식은 물론,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관점이나 정신의학의 관행에 대해 커다란 논란과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은 드라마의 제작자인 토니 가넷(Tony Garnet)과 각본가 데이비드 머서(David Mercer), 그리고 연출을 담당했던 켄 로치를 다시 카메라 앞에 모이게 했고, 영화 <가족 생활>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조현병을 다룬 TV 드라마가 적잖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이를 장편 영화로 다시 만들게 된 배경에는 당시 몇몇 정신의학자들이 주도했던 ‘반정신의학’(anti-psychiatry)의 영향력과 그들이 영국 사회에 불리일으킨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반정신의학은 1950년대 후반 기존의 정신의학 체계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제기하며 영국의 정신의학계 내부로부터 등장했다. 이 흐름을 주도한 R. D. 랭(Ronald David Laing), 데이비드 쿠퍼(David Cooper), 아론 에스터슨(Aron Esterson) 등은 영국의 정신의학계에서 촉망받던 정신과 의사들로서 전두엽 제거술이나 전기충격요법 등 당시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치료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신의학 분야가 그간 “사회 안에서 수행해 온 사회 통제적 기능”을 지적하며, 정신의학적 치료가 “사실상 세밀한 사회통제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다.³⁾ 정신의학계 내부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랭과 쿠퍼는 ‘반정신의학 그룹’의 중심인물로 임상 활동과 저서, 대중강연 등을 통해 1970년대 영국 사회에서 커다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었다.

이들 반정신의학 그룹의 의사들은 실제로 드라마 <분열된 마음>과 영화 <가족 생활>의 제작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 랭의 저서 『분열된 자아』(*The Divided Self*, 1960)⁴⁾와 랭과 에스터슨이 함께 쓴 『온전한 정신,

하도록 한다.

3) Crossley, Nick,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A Socio-historic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47(7), 1998, p. 878.

4) 『분열된 자아』(*The Divided Self*) 는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R. D. 랭의 대표적 저서로

광기, 그리고 가족』(*Sanity, Madness and the Family*, 1964)은 드라마와 영화 양쪽의 각본에 기본 토대가 되었다. 특히, 조현병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례 분석으로 구성된 후자의 책은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로 구성되는 드라마와 영화의 독창적 형식에 영감을 주었다.⁵⁾ 나아가 랭과 쿠퍼 등은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 과정에 자문 역할로 직접 관여했는데, 이 때문에 〈분열된 마음〉과 〈가족 생활〉은 “정신의학은 억압적 제도이고 광기(madness)는 핵가족 환경에서 배태되며, 정신이상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들의 반정신의학 이론의 핵심 주장을 구현하는 이른바 ‘랭의 영화’(Laingian Film)로 통용되었다.⁶⁾ 이처럼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기존의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키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반정신의학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한편,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를 관통하는 대항문화운동(counter-culture movement)과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항문화운동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전체에 걸쳐 영국의 청년세대가 주도한 문화적 저항 운동으로서,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전통적 규범과 관습, 행동양식을 거부하며 새로운 대안적 문화를 실천했던 일련의 흐름을 가리킨다. 대항문화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즘과 원자폭탄 투하 등의 끔찍한 폭력으로 드러난 유럽 사회의 도덕적 위선과 구태의연하고 보수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와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반전, 반제도, 반권위 등을 지향”하며, 대학, 병원, 공장, 가족 제도 등 기존의 낡은 사회제

서 ‘1960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정신분열증 연구에 전환적 관점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가족 생활〉의 원작 드라마인 〈분열된 마음〉은 이 책이 정신분열증에 대해 제시하는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의 제목 ‘In Two Minds’가 책 제목인 ‘The Divided Self’와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5) Snelson, Tim, “From *In Two Minds* to MIND: The Circulation of ‘anti-psychiatry’ in British Film and television during the long 1960s.” *History of Human Sciences*, 34(5), 2021, p. 61.
- 6) Cresswell, Mark and Zulfia Karimova, “Ken Loach, Family Life and Socialist Realism: Som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Journal of British Cinema and Television*, 14(1), 2017, p. 19.

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탈제도화’(anti-Institutionalization)를 실천하려고 했다.⁷⁾ 크게 보아 앞서 언급한 반정신의학의 흐름 역시 이 대항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대정신 아래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영화 〈가족 생활〉은 직접적으로는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기성세대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청년세대에 의해 주도된 이와 같은 영국의 대항문화운동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 생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의 문화적 대변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 텍스트로서 그 가치가 크다. 영화는 제니스(Janice)라는 한 젊은 여성의 심적 문제를 정신의학 제도가 다루는 방식을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곤경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해명함으로써 1960년대 영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과 충돌의 지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영화는 이러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가족, 더욱 구체적으로는 제니스와 그녀의 부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원작 드라마의 제목 〈분열된 마음〉이 〈가족 생활〉로 바뀐 정황은 영화가 개인의 내면에 대한 탐구에서 가족, 또는 가족 관계로 그 강조점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영화는 한 여성의 심리적 내면의 문제를 그녀와 그녀의 부모로 구성되는 ‘가족 생활’과 연결지어 조명하고 그들의 ‘가족 생활’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 개인의 정신적 곤경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한 비판은 영국의 반정신의학 그룹을 하나로 묶는 요소이며 이들의 이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었다.⁹⁾ 예컨대, 반정신의학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조현병을 “존재론적 불안의 직접적 표현”으로 설명했지만, 이후 이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로부터 파생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현상학”적 관점으로 이동했으며, 후기에 오면 가족에 대한 논의를 조현병 가족에 국한 시키지 않고 서구 사회의 가족 제도를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방향으로

7) Wall, Oisín,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From Institutional Psychiatry to the Counter-Culture, 1960-1971*. Routledge, 2018, p. 94.

8) Crossel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6.

9)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43.

전개된다.¹⁰⁾ 랭의 『위생, 광기, 그리고 가족』, 『가족의 정치학』(*The Politics of the Family*, 1969), 쿠퍼의 『가족의 죽음』(*The Death of the Family*, 1971) 등과 같은 책은 이들 반정신의학자들의 가족에 대한 논의를 잘 드러내주는 주요 저작들이다. 특히, 쿠퍼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반정신의학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잘 집약해 준다.

가족의 권력은 그것의 사회적 매개 기능에 있다. 그것은 어느 착취적 사회에서든지 모든 사회적 제도를 위한 통제 가능한 전형적인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지배계급의 효과적인 권력을 강화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형식이 공장, 조합 조직, 초·중등학교, 대학, 기업, 교회, 정당, 정부 기구, 군대, 정신병원을 포함한 병원 일반 등등의 사회 조직을 통해 복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¹⁾

The power of the family resides in its social mediating function. It reinforces the effective power of the ruling class in any exploitive society by providing a highly controllable paradigmatic form for every social institution. So we find the family form replicated through the social structures of the factory, the union branch, the school (primary and secondary), the university, the business corporation, the church, political parties and governmental apparatus, the armed forces, general and mental hospitals, and so on.

가족을 착취적 사회의 “모든 제도의 조건 형성의 장치”¹²⁾이자 매개로 보는 이러한 쿠퍼의 관점은 반정신의학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잘 집약해 주면서, 이들이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낡은 관습과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던 대항문화운동과 결합하는 접점이 된다.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반정신의학의 관점은 영화 <가족 생활>에서 잘 드러난다. 제니스라는 여성 인물이 겪는 조현병적 증상, 또는 정신적 곤경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지며, 이러한 과정은 기성세대인

10) *ibid.*, pp. 147-48.

11) Cooper, David, *The Death of the Family*. Penguin Books, 1971, p. 6.

12)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58.

부모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행하는 억압적 질서와 규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내 준다. 이 글은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영화 <가족 생활>이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영국 반정신의학 그룹의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서구 근대의 핵가족 모델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반정신의학 그룹의 반가족주의 담론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반정신학과 <가족 생활>이라는 문화적 생산물을 1960년대 영국의 대항문화운동이라는 보다 커다란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영화가 드러내는 시대정신과 그에 대한 영화적 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생활>에 대해 당시 영국 정신분열증 협회(Schizophrenia Association)는 “전기충격요법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이미지”와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들어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¹³⁾ 하지만 영화계 쪽에서는 “상업적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영화의 예술성과 진정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비평적 찬사를 받았으며, 대항문화운동 진영에서는 “정신의학 시스템이 사회적 통제 요원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입문서”로 호평했다.¹⁴⁾ <가족 생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원작 드라마 및 영화와 반정신의학 그룹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이러한 미디어 생산물이 영국의 정신의학 분야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거나, 켄 로치의 사회적 리얼리즘적 측면에 주목하여 노동계층의 재현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⁵⁾ 본 연구는 영화 <가족 생활>

13) Snelson, “From *In Two Minds* to MIND,” p. 74.

14) *ibid.*, pp. 74-75.

15) 흥미로운 점은 반정신학과 대항문화운동의 흐름에 동조하는 쪽에서도 영화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피터 세즈윅(Peter Sedgwick) 같은 사회주의 비평가의 관점이다. 그는 영화가 제니스라는 젊은 세대 여성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전형적인 노동계층 인물들인 그들의 부모에 대한 재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영화의 관점이 노동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Sedgwick, Peter, “Who’s mad-you or the system? Dangerous half-truth in attack on the NHS.” *Socialist worker* 5(February) <https://www.marxists.org/archive/sedgwick/1972/02/family.htm>). 하지만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지적처럼, <가족 생활>

의 영화적 재현방식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1960년대 반정신의학과 대항 문화운동으로 집약되는 영국 사회의 문화적 대변동의 특징과 그 핵심에 놓인 ‘반가족주의’ 담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족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 및 뿌리 깊은 가부장주의에서 기인하는 젠더 불평등 문제 등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곤경과 가족의 문제를 연결시켜 조명하는 반정신의학이나 대항문화운동의 접근방식은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유의미한 참조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신의학 제도에 대한 고발

〈가족 생활〉은 제니스라는 열아홉 살 여성의 정신적 곤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제기하는 영화이다. 제니스는 겉으로는 온순하고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아무런 의욕이나 목표가 없으며 심적으로 만성적 무기력과 좌절 상태를 보인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곳을 자주 옮겨 다녔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을 배회하다 경찰에게 이끌려 집에 오게 되면서 부모에게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¹⁶⁾는 비난을 받는다. 제니스가 임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니스의 부모는 낙태를 종용하고 결국 “창피한 줄 모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대가로 그녀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간다.¹⁷⁾

영화의 도입부는 정신과 의사 도널드슨(Donaldson) 박사가 제니스와 그녀의 부모인 베일든 씨 부부를 각각 차례로 면담하는 과정을 담은 시퀀스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영화는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다큐멘터리적 연출 방식을 사용하여, 관객이 제니스가 처한 상황을 피상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은 또한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노동계층 삶의 세밀한 부분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Cresswell and Karimova, “Ken Loach, Family Life and Socialist Realism,” p. 31.).

16) 켄 로치(감독), 〈가족 생활〉(*Family Life*), Kestrel Films, 1971, 00:09:06.

17) *ibid.*, 00:29:30.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의사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던 원작 드라마와 달리, 제니스를 면담하는 도널드슨 박사 역할에 실제 정신과 의사 마이크 리들(Mike Riddle)을 캐스팅한 방식은 그의 상담 장면을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이러한 연출 의도를 더욱 강화 한다.¹⁸⁾ 나아가 도널드슨 박사의 상담 장면들은 제니스와 그녀의 부모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제니스의 ‘비정상성’과 부모의 ‘정상성’에 대한 손쉬운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한다.

제니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부모 역시 심층 상담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도널드슨 박사의 이러한 접근은 정신질환에 대한 반정신의학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기존의 정신의학 제도는 제니스와 같은 사례를 ‘조현병’이라는 의학적 개념으로 규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약물 사용과 전두엽 절제술, 전기충격요법 등 강압적인 신체 치료를 정당화했다. 반면, 반정신의학은 “정신이상 상태와 정상 사이의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이와 같은 정신의학의 기본 개념이나 그 목적에 반기를 들었다.¹⁹⁾ 예컨대, R.D. 랭은 “조현병은 하나의 꼬리표일 뿐이며 그것이 가리키는 특정한 행동은 개인이 아닌 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²⁰⁾ 그는 ‘조현병’은

18) 이러한 연출 방식은 켄 로치 특유의 사회적 리얼리즘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허구적 상황에 실제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영화의 사실적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둔다. 실제 정신과 의사를 기용한 도널드슨 박사 역할 외에도 <가족 생활>은 사실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캐스팅 방식을 거의 모든 인물에게서 구현한다. 예컨대, 전문 배우는 제니스의 아버지인 베일든 씨 역을 맡은 빌 딘(Bill Dean) 거의 유일하며, 제니스 역을 맡은 샌디 랫클리프는 실제 10대 시절 반항적인 ‘문제아’로서 교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 제니스의 어머니 베일든 부인 역의 그레이스 케이브(Grace Cave)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단체에 소속된 여성을 캐스팅한 것으로서 실제로 영화 속 베일든 부인과 매우 흡사한 캐릭터를 지닌 인물이다. 켄 로치 감독은 <가족 생활>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위엄있는 어머니와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딸의 갈등 관계를 캐스팅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캐스팅 방식에 대해 “나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배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신념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라고 설명한다(Hayward, Anthony, *Which Side Are You On?: Ken Loach and His Films*, Bloomsbury, 2004. p.123.)

19) Snelson, “From *In Two Minds* to MIND,” p. 55.

‘제도’로서의 정신의학이 만들어 낸 하나의 개념이자 프레임일 뿐이며, “조현 병이라고 부르는 경험이나 행위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이 만들어낸 특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심리 증상이라고 주장한다.²¹⁾ 영화에서 도널드슨 박사가 제니스가 겪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의 뿌리를 가족 및 사회와의 연관 관계 속에 위치 지워가는 과정은 이와 같은 랭의 반정신의학적 관점을 잘 반영한다.

제니스의 정신적 곤경에 접근하는 영화의 반정신의학의 관점은 여러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도 재현된다.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는 똑같은 집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영국의 대단지 공영주택의 모습이 정지 화면처럼 롱테이크로 제시된다. 숨 막힐 듯 규칙적이고 획일화된 산업도시의 이미지는 제니스를 둘러싼 삶의 조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녀의 문제가 동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25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창고 관리인으로 일한 성실한 노동계층 가장인 제니스의 아버지 베일든 씨와 ‘흠잡을 데 없는’ 주부인 베일든 부인은 반듯하게 줄지어 늘어난 이 공영주택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성’과 ‘전형성’을 부여받는다. 도널드슨 박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상’이나 ‘의무’, ‘책임’ 등의 어휘들은 제니스의 ‘비정상성’과 ‘무책임’의 근거가 되며, ‘존경심’이나 ‘권위’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강조한다.

도널드슨 박사와 베일든 씨 부부의 면담 장면은 ‘공영주택’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베일든 씨 부부의 관점이 제니스가 겪는 정신적 곤경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베일든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²²⁾ 지도와 교정의 주체로서 제니스의 삶에 균림할 때, 제니스는 자기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쁜 애야”²³⁾라는 제니스의 자조적인 진술은

20) Crossle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2에서 재인용.

21) *ibid.*, p. 884에서 재인용.

22) 켄 로치, 〈가족 생활〉, 00:11:03.

자신을 ‘늘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부모의 부정적 관점을 제니스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의 자신 사이의 극심한 괴리에 시달리는 제니스에게, 어느 순간 “너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²⁴⁾라는 베일든 부인의 말은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²⁵⁾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다. 반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제니스와 베일든 씨 부부의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족 관계 속에 내재된 이러한 권력 관계야말로 제니스가 느끼는 정신적 곤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이나 사회 내부에 구조화된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권력 관계를 개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본 반정신의학자들은 “개인 상호 간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직화”²⁶⁾를 주장하며 1960년대 동안 영국에서 여러 치유공동체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했다. 이는 가족, 학교, 병원과 같은 “제도와 기관의 역할을 탈신비화하고 파괴하여 개인들 간에 ‘진정한’ 인간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었다.²⁷⁾ ‘빌라 21’(Villa 21)과 ‘킹슬리 홀’(Kingsley Hall) 등은 반정신의학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대안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설립했던 실험적인 치유공동체로서, 영화에서 제니스가 머물게 되는 도널드슨 박사의 병동은 바로 이를 모델로 재현한 것이다. 영화 속에서 도널드슨 박사와 의료진은 흰 가운 대신 평상복을 입고 제니스를 비롯한 환자들 역시 일상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친교를 나눌 수 있으며, 침대에 강제로 누워있지도, 의료적 시술 행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와 비슷한 치유공동체는 기존의 정신의학에서도 시도된 바 있지만, 반정신의학자들이 설립한 치유공동체는 “의료진-환자 관계의 비형식화,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탈낙인 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동체들보다 훨씬 더 나아간”²⁸⁾ 것이었으며, “의사들의 권위적 역할, 환자들의 수동적 역할, 치유 행위

23) *ibid.*, 00:24:11.

24) *ibid.*, 00:07:30.

25) *ibid.*, 00:24:32.

26)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77.

27) *ibid.*, p. 82.

28) *ibid.*, p. 78.

의 가치, 제도화된 정신의학의 철학적 유효성 등에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보다 정신의학 치료에서 정신병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매우 실험적인 시도들이었다.²⁹⁾

하지만, 영화는 도널드슨 박사가 운영하는 치유공동체 병동이 해체되면서 제니스가 기존의 정신의학 치료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정신의학이 정신질환을 다루는 관점과 이것이 사회와 연관되어 기능하는 방식을 드러내 준다. 기존의 정신의학계를 대표하는 의사 캐스웰(Caswell)은 “1500명을 수용하는 병원에서 30명의 환자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³⁰⁾는 주장으로 도널드슨 박사의 병동을 문제 삼게 되고, 결국 병동이 폐쇄되면서 제니스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다른 환자들처럼 주사 요법과 전기충격 시술 등 신체 치료를 받게 된다. 캐스웰에게 제니스는 명백히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분류되어야 하며, 정신의학의 치료 목표는 “제니스 같은 환자들을 정상적 삶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다.³¹⁾

그러나 영화는 캐스웰의 주장대로 신체 치료를 받은 제니스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에 앉아 똑같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정신의학이 치료의 목표로 삼는 ‘정상화’나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캐스웰이 말하는 ‘사회’란 자본과 산업의 요구와 논리에 충실히 복종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화의 마지막에 캐스웰이 자신이 담당하는 의과대학 수업 강의실로 제니스를 데리고 들어와 그녀를 조현병 환자의 가장 전형적 사례로 소개하는 장면이다. 제니스는 캐스웰이 이끄는 대로 온순하고 복종적인 모습으로 전형적인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국 정신의학은 제니스를 자신이 규정한 정신질환의 틀 속에 집어넣어 그에 부합하는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자신의 체계를 강화해주는 임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영화 〈가족 생활〉은 이런 방식으로 기존 정신의학의

29) *ibid.*, p. 52.

30) 켄 로치, 〈가족 생활〉, 00:50:02.

31) *ibid.*, 00:55:01.

자기 재생산 방식과 그것의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시스템과의 연관성, 공모성을 재현함으로써 정신의학의 근본적 목표나 역할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다.

3.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가족주의

1960년대는 유럽 전역에서 소위 ‘문화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문화혁명의 주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경제 성장과 그것에 기반한 ‘베이비 붐’을 동력으로 형성된 청년세대로서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으며, 여기에 전후 미국의 자유분방한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보편적 청년문화를 형성했다.³²⁾ 이 청년문화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틀에 박힌 관습이나 규범, 권위에 기초한 위계질서 등에 반발하며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와 충돌을 겪었고,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 동안 영국에서는 대항문화운동으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소위 ‘68혁명’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모델에 기반한 정치 혁명이라기보다, 일상적 행동이나 사고의 영역, 즉 학교나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 관계, 남녀 관계 등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의 대변동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화혁명’으로 일컬어졌다.³³⁾ 이와 같은 문화 대변동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지향, 새로운 실천”³⁴⁾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이 세대의 대변자이자 ‘68혁명’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에 따르면 “새로운 감수성”의 등장이기도 했다.³⁵⁾

〈가족 생활〉에서 제니스가 부모와 겪는 갈등과 불화는 바로 이와 같은 대항문화의 맥락을 그 사회적 배경으로 한다. 〈가족 생활〉에는 원작 드라마에

32) Marwick, Arthur, “Youth Culture and the Cultural Revolution of the Long Sixties,” *Between Marx and Coca-Cola: Youth Cultures in Changing European Societies, 1960-1980*, eds. Axel Schildt and Detlef Siegfried, Berghahn Books, 2006, pp. 39~40.

33) *ibid.*, p. 43.

34) *ibid.*, p. 56.

35) Marcuse, Herbert, *An Essay on Liberation*. Beacon Press, 2000, p. 22.

등장하지 않았던 제니스의 남자친구 팀(Tim)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팀은 예술가이자 자유분방한 히피 생활을 하는 인물로서 대항문화의 정신을 제니스에게 설파한다. 그가 제니스에게 영화의 첫 장면이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공영주택 단지의 길게 늘어선 똑같은 집들과 그 너머의 공장 굴뚝들을 가리키며 하는 말들은 기성세대의 낡고 진부한 생활방식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서 대항문화의 핵심적 주장을 잘 드러낸다.

[...] 저기 밖을 봐. 저게 네 부모님이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지. 저게 바로 네 부모들이야. 그들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그걸 네게도 강요하지. 그걸 정상이라고 해. 봐,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게 제정신인 거야?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시간을 잘 지키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 저기에 가서, 저 공장들 가운데 한 곳에 가서 하루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그런 얘기인 거고, 그게 바로 가족이란 거야. 빌어먹을 훈련 캠프 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 네가 그걸 똑같이 하게 만들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어디에 있는 건데? 너는 어디에 있는 거냐?³⁶⁾

[...] Look at that out there. That's your mum and dad. Get that. Early to bed, early to rise, out to work. That's your mum and dad. Do as they're told. That's what they got to do to you. And that's normal. You see, that's normal. But, is it sane? I mean, do you think it's sane? 'Cause I don't. Punctual. Passive in their place. So that they can go out there, out to one of those factories, and do a day's work. That's what it's about. That's what it is and that's what families are. Like bloody training camps. Aren't they? To get you to do the same thing. Where are you in all this. Eh, I mean, where are you?

팀의 말에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정상적'(normal)이라고 강요하는 것들, 예컨대 정해진 시간에 공장에 가서 하라는 일이나 하는 것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이와 같은 생각의 바탕에는 기성세대의 수동적이고

36) 켄 로치, 〈가족 생활〉, 00:58:40.

무비판적인 순응적 사고방식에 대한 혐오와 경멸이 깔려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순응적 사고방식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초래했고, 결국 나치즘과 원자폭탄이라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60년대 대항문화는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강제수용소를 만들었으며, 이제는 태연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순응적 삶으로 일관하는 부모 세대의 도덕적 권위와 위선에 대한 전후 청년세대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항문화운동이 “모든 형태의 억압적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해방의 서사’(the narrative of liberation)로 향하게 했다.³⁷⁾

‘가족’에 대한 팀의 신랄한 비판 역시 대항문화의 가족 제도에 대한 단호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팀에 따르면, 기성세대의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사고방식은 대학, 병원, 공장, 군대와 같은 일련의 사회제도의 산물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서 순응적 주체를 만들어 내는 ‘훈련 캠프’(training camps)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제도에 대한 팀의 신랄한 비판은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영화의 메시지를 대변하는데, 영화가 재현하는 제니스의 부모 베일든 씨 부부의 삶이 바로 ‘훈련 캠프’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잘 요약해주기 때문이다. 도널드슨 박사와의 면담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가족 생활은 부양 및 양육과 집안 관리라는 부부의 분업구조에 기반한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부부의 성(性) 역시 생식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베일든 씨 부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형성을 위해 필요한 생식의 영역 바깥에서 이루어진 제니스의 임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러운,’ ‘해픈’ 등의 낙인을 동원한 비난으로 자신의 성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보수적 태도에 대해 “섹스가 나쁜 건가요?”라고 되받아치며 점잖은 체 “지저분한 일요신문이나 보는” 아버지의 위선적 태도를 조롱하는 제니스의 비난 역시 개방성과 솔직함에 기반한 성적 자유를 지향하는 대항문화의 관점을 반영한다.³⁸⁾ 베일든 씨 부부가 대변하는 이러한 규범화된 가족 생활의 모델은 제니스의 언니 바바라(Barbara)의 주체적이고 독립적 태도를 ‘불손한 것’으로

37)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35.

38) 켈 로치, 〈가족 생활〉, 01:16:38~01:17:15.

규정하고 제니스에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편해”라는 순응적 태도를 내면화시키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제니스가 부모가 정상적인 것, 옳은 것으로 정해 놓은 가족 생활의 규범을 이탈하려 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순응적인 노동력이 되지 못했을 때, 그녀는 즉각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되어 교정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베일든 씨 부부가 대표하는 “주류의 ‘똑바른’ 사회와 그 문화”⁴⁰⁾와 이를 거부하는 대항문화 간의 충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직장에서 받은 ‘25년 근속 기념 시계’를 제니스가 내던져 박살 내는 장면이다. 이 시계는 아버지 베일든 씨의 소중한 전리품으로, 반듯하게 일렬로 늘어선 공영주택의 집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영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추구해온 지배적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정신의학이 강제하는 치료를 받으며 온순한 사회인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돌아간 듯한 제니스가 규칙적으로 재깍거리는 아버지의 시계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는 바로 시계로 대표되는 가치체계, 혹은 시계가 통제하는 질서에 대한 분노이자 저항의 분출로 볼 수 있다.

팀과 제니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원에서 푸른색 스프레이를 뿌려대며 즐거워하는 장면 역시 대항문화의 저항적이며 전복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제니스의 부모가 가꾼 반듯한 정원은 그들의 가족 생활을 정상적이며 반듯한 것으로 완성해주는 사회적 상징과도 같지만, 거기에 제니스의 자리는 없으며 제니스와 바바라 같은 가족의 ‘완전함’을 훼손하는 요소들을 잘 가려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팀은 제니스에게 스프레이를 건네주며 “너는 그걸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네 표시를 할 수는 있지”⁴¹⁾라고 하는데, 이는 베일든 부부가 통제하는 세계에 대한 팀과 제니스의 거부이자 기성세대의 진부함과 고루함을 유희적 놀이로 파열시키려는 시도인 동시에, 기성세대가 구축해놓은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내려는 대항문화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9) *ibid.*, 00:26:01.

40) Nelson, Elizabeth, *The British Counter-Culture, 1966-1973: A Study of the Underground Press*.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p. 8.

41) 켄 로치, 〈가족 생활〉, 00:59:39.

팀은 제니스에게 집을 떠나 독립할 것을 권유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제니스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제니스가 다시 병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 이르면 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앞서 언급했듯 제니스는 약물을 강제로 주입 당하고 전기충격 치료를 반복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남아 캐스웰 박사의 대학 강의실에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사례로 실험과 관찰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제니스의 침묵과 무관심한 태도, 얼이 빠진 듯한 체념적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경험하게 되며 영화가 제시하는 결말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영화는 주류 사회와 그것이 지탱하는 사회시스템에 맞서는 대항문화의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문제의식을 영화의 바탕에 흐르게 하지만, 켄 로치의 리얼리즘은 결국 대항문화가 맞서야 하는 주류 시스템의 견고함과 집요함을 냉정하게 재현하는 쪽을 선택하는 듯하다. 영국의 대항문화운동은 1970년대에 접어들며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대항문화운동을 형성했던 여러 흐름과 집단들이 어떤 단일한 형태의 목표나 신념, 조직 등으로 묶였던 것은 아니며 전체를 포괄하는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었기에 이는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조차도 결국 반영웅, 반지식을 추종하는 이들 대항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영국 청년세대의 대항문화는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 현실에 대한 해석과 비판에 기초해 대안적 삶의 방식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화를 창안해내려 했고 영화 <가족 생활>은 한 가족의 ‘가족 생활’이라는 미시적 영역에 대한 사실적 재현으로 그 문제의식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1960년대의 시대정신과 <가족 생활>

<가족 생활>은 영국의 1960년대를 배경으로 제니스라는 젊은 여성이 겪는 정신적 붕괴를 따라가며, 그녀가 당시의 정신의학이 규정하는 조현병 환자의

42)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p. 90-94.

프레임 안으로 포획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제니스가 겪는 정신적 곤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영국 사회가 통과하고 있었던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 위치시킨다. 여기서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은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읽어내는 핵심적인 맥락을 부여한다.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흐름은 전후 영국 사회의 근간이 된 가치체계, 사회규범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서 영국의 청년 세대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생활〉의 서사가 직접적으로 기대고 있는 반정신의학은 영국 사회에서 규율적 제도로서의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대중화하고 사회에서의 정신의학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 논쟁을 열어주었으며, 이미 흔들리고 있던 정신병원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동요시켰다.⁴³⁾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정신건강 환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체로 나서는 ‘서비스 이용자 운동’(the Service Users’ movement)을 이끌어냈으며, 결과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에 영국에서 대형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⁴⁴⁾ 뿐만 아니라, 반정신의학의 영향력은 정신의학계를 넘어 당시 영국의 미디어,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과 의견을 형성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⁵⁾ 예컨대, 반정신의학의 관점과 실천은 다수의 예술적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다. 반정신의학 그룹이 운영한 대안적 치료공동체인 ‘킹슬리 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사일럼〉(*Asylum*, 1972)으로 만들어지고 그곳의 거주자였던 메리 반즈(Mary Barnes)라는 여성의 체험은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반정신의학 그룹을 이끌었던 랭의 책 『분열된 자아』는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고, 『매듭』(*Knots*)은 영화, 연극, 라디오극으로 각색되었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다룬 TV드라마 〈분열된 마음〉은 영국 내에서 커다란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영화 〈가족 생활〉은 영국을 넘어 유럽 사회의 호평을 얻게되어 이후 켄 로치 감독의 영화

43) *ibid.*, p. 7.

44) *ibid.*, p. 7.

45) Crossle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0.

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제작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반정신의학이 이처럼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신의학 자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사회 및 국가 권력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권력구조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 제도라는 점을 제기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정신의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작 전체를 통해 “미시정치적 차원, 즉 가족이라는 차원에 대한 해방을 통해서만이 사회는 거대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⁴⁶⁾ 그들은 가족이라는 제도가 지니는 정치적 측면을 밝혀내면서 사회제도를 바꾸는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만 개인이 가족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 그렇게 되면 국가라는 허구적 억압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족 생활의 잠재적 해로움”에 대한 반정신의학의 관점이 ‘킹슬리 홀’과 ‘빌라 21’과 같은 치유 공동체의 설립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대항문화운동의 반가족 및 공동체 지향”이라는 측면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접점이 되었다.⁴⁷⁾

랭과 쿠퍼 등 반정신의학자들은 대항문화운동 그룹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세운 ‘킹슬리 홀’과 ‘빌라 21’은 자치공동체의 본보기이자 대항문화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예컨대, ‘킹슬리 홀’에서는 반정신학과 철학 관련 강좌가 열렸고 대항문화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와 회합을 열었으며, 실험 연극 그룹, 아방가르드 시인, 예술가, 음악가, 무용수들과 사진사, 신좌파(New Left) 이론가들, 런던의 반대학(anti-university) 학생들, 코뮌운동의 지도자 등이 킹슬리 홀에 모여들었다.⁴⁸⁾ 반정신학과 대항문화운동 그룹은 ‘탈제도화’(disinstitutionalization)라는 기본 입장을 공유하는 가운데, 반병원(anti-hospital), 반대학(anti-university), 반가족(anti-families) 등 기존의 거대한 사회제도들에 대한 ‘안티’(anti) 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사회 변화가 “사회를 서로 묶어주는 개인 상호간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직화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일치했기 때문이다.⁴⁹⁾ 랭과

46)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163.

47) Crossley,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p. 885.

48) *ibid.*, p. 885.

함께 반정신의학 그룹의 중심 인물 중의 하나이자 ‘빌라 21’을 이끌었던 쿠퍼는 자신이 참여한 ‘반대학’ 운동에 대한 인터뷰에서 ‘안티’ 활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안티’는 게임 규칙의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게임이든, 병원이라는 맥락이든, 어떤 예술의 형태이든 학문적 상황이든 게임 규칙에 있어서의 기본적, 질적, 급진적 변화이다. 그것의 기본적 목표는 모든 거짓된 구분, 구획화, 즉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틀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학문적 틀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다. 예컨대, 관료적 학문 제도의 전체적 본성, 거짓된 학문 분야 사이의 구획, 그리고 이것의 많은 다른 분야로의 확장 등의 측면에서 말이다.”⁵⁰⁾

The ‘anti’ signifies a basic change in the rules of the game, whatever game one’s playing, whether it’s in the context of a hospital, a certain art form, academic situation, it’s a basic, qualitative, radical change in the rules of the game. Whereby the basic aim is to break down all false compartmentalizations, in other words, boxes that people get into. So we’re concerned to breakdown academic boxes, in terms of the total nature of the bureaucratic academic institution, false discipline compartmentalization and this extends to many other areas.

이러한 ‘반제도’, ‘탈제도’ 운동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의 경직성과 폭력적 측면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운동이 합류하는 지점이 되었으며 이는 ‘킹슬리 홀’과 ‘빌라 21’ ‘런던 반대학’(Antiuniversity of London) 등 대안적 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실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를 관통하는 두 개의 주요한 담론인 반정신의학과 대항문화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 접근하며, 이들 담론을 영화의 서사 및 연출을 통해 교직하고 합류시킨다. 영화는 개인이 경험하는 억압과 소외, 정신적 곤경을 그가 속한 ‘가족 생활’ 내부의 심층으로 밀착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49) Wall,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p. 77.

50) *ibid.*, p. 79에서 재인용.

사회와 기존의 정신의학이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 접근하는 부조리한 방식을 고발한다. 또한 이를 대항문화운동의 관점과 연결하여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전후 영국 사회의 문화변동 과정에 비평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가족 생활>은 1960년대 영국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대 간 문화적 갈등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며 개인이 직면하는 정신적 위기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이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혜안을 기르는 데 이 영화가 커다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영상 자료

- 켄 로치(감독). <가족 생활>(Family Life). Kestrel Films, 1971. (영화)
켄 로치(감독). <분열된 마음>(In Two Minds). BBC, 1967. (TV 드라마)

2. 문헌 자료

- Cooper, David. *The Death of the Family*. Penguin Books, 1971.
- Cresswell, Mark, and Zulfia Karimova. “Ken Loach, Family Life and Socialist Realism: Som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Journal of British Cinema and Television*, vol. 14, no. 1, 2017, pp. 19~38.
- Crossley, Nick. “R.D. Laing and the British Anti-Psychiatry Movement: A Socio-historic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47, no. 7, 1998, pp. 877~89.
- Hayward, Anthony. *Which Side Are You On?: Ken Loach and His Films*. Bloomsbury, 2004.
- Marcuse, Herbert. *An Essay on Liberation*. Beacon Press, 2000.
- Marwick, Arthur. “Youth Culture and the Cultural Revolution of the Long Sixties.” *Between Marx and Coca-Cola: Youth Cultures in Changing European Societies, 1960-1980*, eds. Axel Schildt and Detlef Siegfried. Berghahn Books, 2006.
- Nelson, Elizabeth. *The British Counter-Culture, 1966-1973: A Study of the Underground Press*.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 Snelson, Tim. “From *In Two Minds* to MIND: The Circulation of ‘anti-psychiatry’ in British Film and television during the long 1960s.” *History of Human Sciences*, vol. 34, no. 5, 2021, pp. 53~81.
- Sedgwick, Peter. “Who’s mad-you or the system? Dangerous half-truth in attack on the NHS.” *Socialist worker* 5(Feb) <<https://www.marxists.org/archive/sedgwick/1972/02/family.htm>>
- Wall, Oisín. *The British Anti-Psychiatrists: From Institutional Psychiatry to the Counter-Culture, 1960-1971*. Routledge, 2018.

| Abstract |

The Anti-familialism of Anti-psychiatry and
Counter-Culture Movement in 1960s British Society
: Ken Loach's *Family Life*

Lee, Hyeran

Ken Loach's film *Family Life* approaches individual mental issues based on the two major discourses that caused a significant stir in 1960s British society: 'anti-psychiatry' and the 'counter-culture movement'. The film exposes, through a realist portrayal, the process by which Janice, a young woman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becomes trapped within the oppressive structures of her family and the psychiatric system. This mirrors the core argument of anti-psychiatrists like R. D. Laing and David Cooper: that "madness is bred in the nuclear family environment, and psychiatry performs a function of social control." The film also delves deeply into the clash between the uniform, conformist value system of the older generation, symbolized by Janice's parents, and the counter-cultural spirit of Britain's youth in the 1960s. It critically depicts the collusive relationship within the vast social system—extending from the micro-institution of the family to mental hospitals and factories—moving beyond an exploration of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issues. The film presents a severe conclusion where Janice is helplessly 'normalized' by the existing mainstream psychiatric system, becoming either a compliant labor force for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or a clinical case for psychiatry. This demonstrates the resilience of the mainstream system faced by the 1960s anti-psychiatry and counter-culture movements' attempts toward anti-familialism and deinstitutionalization. The film *Family Life*, grounded in director Ken Loach's signature social realism approach, elucidate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issues through the lens of the cultural upheaval and zeitgeist of 1960s British society.

Key Words: Ken Loach, *Family Life*, schizophrenia, anti-psychiatry, counter-culture movement, anti-familialism

